

計成의 『園冶』에 관한 基礎的 研究

이유직* · 황기원**

* 밀양산업대학교 조경학과 ·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A Basic Study on the *Yuanye* of Ji Cheng

Lee, Yoo-Jick* · Hwang, Kee-Won**

*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Miryang National Univ.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

ABSTRACT

Ji Cheng's great work on garden design, the 'Yuanye' (*Craft of gardens*), written in 1631 and originally published in 1634 is the first surviving manual on landscape gardening in the Chinese tradition.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not only Ji Cheng's life, achievements, companionship, and design activities, but also the xylographic copies, literary style, and framework of Yuanye in their historical context in order to provide the bases for further study. Ji Cheng was excellent in poetry and painting. And he constructed Dongdiyuan in Changzhou around 1623, Wuyuan in Yizheng in 1631, and Yingyuan in Yangzhou around 1634. But no poems, paintings, and gardens designed by him still exist. Therefore his design philosophy is able to be interpreted only by his work, Yuanye.

After publishing, Yuanye fell into obscurity for several centuries in China. It was rediscovered and reprinted for the first time in 1931. Yuanye is composed of prefaces and main text. The main text is divided into 'the Theory of Construction' and 'on Gardens', and the latter also into 10 sections. In this text, Ji Cheng explains the aesthetic principles underlying garden design and the appropriate emotional response to various effects. Especially, h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asing the garden design on the existing nature and features of landscape and making use of natural scenery. The literary style of the book is highly mannered, and there are so many poetic descriptions and Ji Cheng's native Jiangsu dialects. So the translation of the original text is very difficult. After this, the major design concepts of Ji Cheng's landscape gardening theory and whole network of these concepts have to be studied.

I. 序論

1. 研究의 目的

『園冶』는 중국 명나라 시대의 計成에 의해 1631년에 저술되고 1634년에 간행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최초의 동양정원 이론서이다. 동양정원의 이론서로서 『원야』 이외에도 文震亨의 『長物志』, 李漁의 『一家言·居室部』, 일본의 『作庭記』 등 여러 문헌들이 있지만 동양예술의 보편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저자의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야』는 여타의 저술들과는 구별된다. 이 책은 내용면에서 동양 전통정원의 디자인 이론과 환경과 경관에 대한 디자인 철학, 그리고 조영재료 및 시공방법까지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울러 그 서술에 있어서도 미학적으로 '意境'의 차원에까지 연결되고 있어 정원을 利用하고 鑑賞하는 東洋의 방식 또한 함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양 전통조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조경문화의 현대적 수용과 창출을 위해서는 『원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일이라고 판단된다.

『원야』는 중국문화의 중심지인 양자강 하류 지역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계성이 활동하던 시기는 정치적으로 宦官派와 東林派간의 정쟁이 극에 달해있고, 사회적으로는 각지에서 일어난 농민의 반란이 정치적 혼란과 함께 명조의 멸망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문화적으로는 마테오 릿치(利瑪竇), 아담 샬(湯若望) 등에 의해 상해를 통하여 서양의 문물이 밀려들어 오는 가히 혼란적이고 전환기적인 시대였다. 계성의 『원야』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출간된 시대 문화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계성의 디자인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남긴 유일한 작품인 『원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원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의 디자인 이론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성과 『원야』에 대한 기초적이고 맥락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이해를 바탕으로 翻譯하고 註釋을 달고 釋明하는 작업이 연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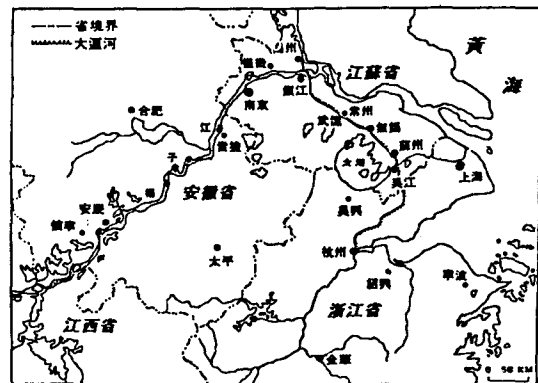
계성의 정원이론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을 도출하고 동양조경의 문화속에서 이러한 개념의 발현을 구명함으로써 비로소 이론서로서 『원야』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자 計成과 그가 저술한 『園冶』를 대상으로 기초적이고 맥락적인 고찰을 하므로써 향후 『園冶』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研究의 內容 및 方法

본 연구는 『원야』와 그 이론인 『奪天工』, 『木經全書』, 重刊本인 중국영조학사본(1933), 그리고 『원야주석』(1988)을 저본으로하고, 橋川時雄(1970) 및 上原敬二(1975)의 일본어 해설서, A. Hardie(1988)의 영역본, 金聖雨·安大會(1993)의 국역본 등을 참고본으로 하였다.

계성의 생애와 행적, 교유, 조원활동 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자료는 많지 않다. 그래서 『원야』에 있는 계성의 「自序」와 跋文, 완대성의 「治叙」, 정원훈의 「題詞」 등과 계성이 교류하였던 문인들, 예를 들어 吳玄, 阮大鍼, 曹履吉, 鄭元勳 등의 詩文中의 간접적인 기록들, 그리고 계성이 조영한 常州 오현의 東第園, 儀徵 왕사형의 寤園, 揚州 정원훈의 影園에 대한 관련 기록들을 중심으로하여 고찰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크게 저자 계성에 관한 측면과 『원야』에 관한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는데, 저자 계성에 관한 고찰로서 계성



(그림 1) 『원야』의 배경인 양자강 주변 지역도

의 생애와 사적, 교유, 조원활동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園冶』에 관한 고찰로서는 『원야』의 출간 및 구성, 『원야』의 판본 및 서지적 특징, 『원야』 본문의 교감, 그리고 문체상의 특징과 해석상의 문제점 등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II. 著者 計成에 관한 考察

1. 生涯와 事跡

계성은 明 神宗 萬曆 10년(서기 1582년) 松陵(지금의 江蘇省 吳江현)에서 태어났으며 사망년대는 정확하지 않다. 그의 자는 無否이고 호는 否道人인데, 자와 호에 모두 否자가 들어 있다. 否자는 음이 두 가지로서 不(fou)라고도 읽으며 比(pi)라고도 읽는다. 不라고 읽을 때는 같지 않다, 그렇지 아니하다, 부인하다 등의 의미가 있으며, 比라고 읽을 때에는 악하다, 나쁘다, 막히다 등의 의미가 있고 『周易』에서는 '천지가 교합하지 못한 상태'를 比라고 하였다. 曹汎은 無否를 무부(wufou)라고 읽고 否道人을 '비도인'으로 읽었다. 無否를 무부라고 읽은 것은 옛 사람들의 이름과 자가 종종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無否의 否를 無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계성의 자는 부정의 부정, 즉 긍정을 의미하게 되고 이러한 긍정은 '이룬다(成)'는 뜻과도 부합되므로 결과적으로 계성의 이름과 합치된다는 것이다. 또한 否道人을 비도인으로 읽은 것은 비가 '천지가 교합하지 않는' 운수라는 의미이고 이것은 생애가 불우했다는 계성자신의 술회와도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 이에 대해 본 연구자들은 否를 막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여 無否(wupi)를 막힘이 없이 이루어 낼 수 있다는(成)

(그림 2) 계성⁴⁾

의미로 보았으며,²⁾ Hardie 또한 無否를 무비(Wupi), 否道人을 부도인(Negative Taoist)로 해석하였다.³⁾

否를 不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 比로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양자가 발음은 다르지만 기실 어원은 같기 때문에 설득력을 가진 어떠한 견해라도 반대의 해석 또한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無否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고자 하며, 비도인이라는 호는 '불우한 도인'을 의미한다는 조신의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계성은 기이한 것을 찾아 살피는 것을 좋아하는 성품이었다고 스스로 「자서」에서 밝혔는데, 그의 인물됨에 대하여 완대성은 "계성의 사람됨은 매우 질박하고 정직하며, 생각과 정신이 아주 기발하여 우리들의 나쁜 습성도 그를 대하면 다 사라지곤 한다"⁵⁾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그의 성격은 젊어서 燕(북경, 하북성 북부)과 楚(호북, 호남성) 지방 등을 여행하게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

1) 曹汎(1982), p. 2.

2) 黃琪源, 李暉植, 具泰益, 全漢玉(1993), p. 112.

3) Hardie(1988), p. 12.

4) 중국 소주 拙政園내 원림박물관에 전시된 사진이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계성의 초상화가 그려져 오늘날까지 전해지지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그림은 박물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기위하여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 것으로 보인다.

5) "無否人最質直, 膽絕靈奇, 儂氣客習, 對之而盡." (阮大鍼「治叙」)

이며, 이 여행의 경험은 나중에 그로하여금 조원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년이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된 바는 없다.

계성은 젊었을 때부터 그림에 뛰어났다. 「자서」에서 “나는 젊었을 때에 그림을 잘그린다고 명성이 났었으며 특히 關全⁶⁾과 荊浩⁷⁾의 그림에 담긴 뜻을 가장 좋아하여 그림을 그릴 때에는 언제나 이들을 스승으로 삼았다”⁸⁾고 하였다. 조신은 『원야』의 원고 속에는 계성이 직접 그린 원림의 山水景物圖가 있었지만 정식으로 출판될 당시에는 빠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다.⁹⁾ 계성은 또한 시에도 뛰어났다. 그의 시는 전해지는 것은 없으나 駢麗文으로 쓰여진 『원야』의 「원설」, 〈차경〉 등의 문장을 통하여 그의 시가 매우 심원하고 격조가 있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고 적어도 보잘 것 없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완대성은 『원야』의 서문에서 “그의 시와 그림은 그의 사람됨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하며 칭찬하였는데, 이 언급으로 보아 계성은 조원활동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시도 쓰고 그림도 그렸던 것으로 추측되나 그의 시와 그림 또한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다.

燕과 楚지방 등을 유람한 후 계성은 중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潤州(오늘날의 진강)에 살면서 우연한 기회에 석가산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일개 시인이자 화가에서 원림의 조영을 주관하는 ‘主者(master)’가 되었다. 이무렵 그는 오현, 왕사형, 조이길, 완대성, 정원훈 등과 교류하면서 天啓 3년(1623, 나이42세)에서 4년사이에 常州에다 오현을 위하여 東第園을 만

들었으며, 崇禎 4년(1631, 50세)에 儀徵에 왕사형의 寤園을 만들었고, 崇禎 7년(1634, 53세)에서 8년사이에 揚州에다 정원훈의 影園을 조영하였는데 이들 정원에 대하여 오현, 완대성, 조이길, 정원훈 등은 모두 극구 칭찬하였다. 그러나 그가 조영한 정원 또한 모두 유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계성은 왕사형을 위하여 오원을 만들면서 한편으로 원림의 조영에 관한 『園牧』이라는 제목의 초고를 완성하였다. 崇禎 4년(1631), 당시의 명사였던 姑孰에 사는 조이길은 이 초고를 보고 “이책은 천고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이라며 계성이 처음으로 만들어 낸 것이므로 그 제목을 『園治』로 고쳐주었다. 그러나 곧바로 출간된 것은 아니었고 3년뒤 崇禎 7년(1634, 53세)이 되어 완대성의 도움을 받아 출간되었다. 崇禎 7년부터 계성은 양주에서 정원훈을 위하여 영원을 조영하였는데, 崇禎 8년(1635) 영원이 완성되자 정원훈은 계성의 조원철산에 대하여 대단히 감탄하며 그를 ‘國能’이라고 칭송하는 『원야』의 「제사」를 써주었다. 계성에게는 長生, 長吉 두 아들이 있었지만 살아가는 것이 곤궁하였기에 아들들은 조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 이후의 계성의 종적은 알 수 없다. 崇禎 8년(1635)은 바로 李自成的 농민 반란군이 명조의 발상지인 鳳陽을 공격하여 왕릉을 파괴하는 등 그 기세가 날로 더해가던 무렵이었고 이로 부터 10년뒤 1644년에 명조는 이자성에 의해 멸망되었다. 造園撰山藝術로써 부잣집에 기식해 살던 계성은 명말초초의 동란의 시기에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졌다.

6) 關全(10세기경)은 五代 後梁(907-923)의 산수화가이다. 섬서성 장안인으로서 처음에는 형호를 배웠는데, 각고정진하여 형호와 병칭되는 대가가 되었다 한다. 그러나 그는 인물 그림에는 능하지 못하여 인물은 胡翼으로 하여금 그리도록 하였다 한다. 그는 형호가 열어놓은 大觀的인 화복산수화를 계승하여 힘차고 자유로운 필법과 담묵에 의한 묵법을 가미하므로써 형호에게서 남아 있던 著彩와 木彫의 固形感을 불식하고 필요형식을 보다 진전시켜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葛路 (1989), p.250.)

7) 荊浩(870년경-930년경)는 오대 후량의 하남성 심수인으로 자는 浩然, 호는 洪谷子이다. 그는 경사에 박통하고 글을 잘 썼으며 글씨와 그림에 능하였는데 특히 산수화에 뛰어났다. 그는 항상 吳道子의 필법과 項容의 묵법을 결합시키고자 하였다 하는데, 이는 곧 당대의 기법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산수화에 있어서 보다 사실적인 묘사를 가능케 하는 기법연구에 주력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기법으로 태행산의 진경을 무수히 사생하여 중국 산수화사상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筆法記가 있다. (葛路 (1989), p.163.)

8) “不佞少以繪名, ... 最喜關全·荊浩筆意, 每宗之.” (『自序』)

9) 曹枏 (1982), p.2.

2. 交遊

계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는 吳玄, 汪士衡, 曹履吉, 阮大鍼, 鄭元勳 등이 있다. 오현과 왕사형은 계성이 조원을 해준 원림주이며, 조이길은 계성이 저술한 책의 이름을 『園治』라고 지어준 인물이고, 완대성은 『원야』의 출간에 도움을 준 인물이다. 정원훈은 계성의 원림주이자 가장 오랜 기간동안 알고지낸 친구이기도 하다. 이들중에서 완대성, 조이길, 정원훈을 먼저 살펴보고 오현과 왕사형은 그들의 원림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 阮大鍼

완대성은 명조 말의 시인으로 자는 集之이며 호는 圓海, 石巢, 百子山樵이다. 안휘성 회녕인으로서 태어난 해는 알 수 없으나 청 順治 3년(1646)에 사망하였다. 萬曆 44년(1616)에 進士가 되었으며 천계 년간에 吏科給事中이 되었다. 천계 7년(1627)에 환관으로서 공포 정치를 하여 악명이 높았던 魏忠賢이 처형되자 그를 추종하였던 완대성은 실직하고 역적의 명부에 이름이 올랐다.

이후 완대성은 승정 5년(1632)을 전후한 시기에 농민의 반란으로 남경으로 이주하였는데,¹⁰⁾ 그곳에서 그는 왕사형의 오원에 자주 오가며 왕사형, 조이길 등과 어울렸다. 아울러 이곳에서 조

이길을 통하여 계성을 알게되고 『원야』에 서문을 쓰고 출간해 주었다. 그의 문집인 『詠懷堂詩集』과 『詠懷堂詩外集』도 『원야』가 출간된 다음 해인 승정 8년(1635)에 완성되었으며,¹¹⁾ 이밖에 『燕子箋』, 『春燈謎』 등의 傳奇(명대의 장편희곡) 9종도 대부분 실직하고부터 승정 17년(1644) 福王 翁립을 도모하기까지 17년 간의 기간동안에 쓰여졌다. 완대성의 시중에서 계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승정 5년(1632)에 쓴 「計無否理石兼閱其詩」, 승정 6년(1633)의 「宴汪中翰士衡園亭」, 승정 7년(1634)의 「早春懷計無否張損之」 등이 있는데 조신은 완대성이 계성과 교유한 시점을 승정 5년(1632)에서부터 승정 7년(1634)까지의 기간으로 보았다.¹²⁾

완대성은 한편으로 협객들을 모아 정치적 반격을 도모하였는데, 東林黨¹³⁾과 궤를 같이하는 재야 정치운동인 復士運動의 대표적 인물 顧杲가 吳應箕 등과 「留都防亂揭」를 만들어 이들을 공격하였다. 북경이 함락되고 명조가 멸망하자(1644) 완대성은 馬士英과 결탁하여 副都 南明에서 福王(朱由崧, ?-1646)을 弘光帝로 옹립 南明 정권을 수립하고 동림파들을 주살하였다. 그는 兵部侍郎이 되었으며 다시 兵部尙書로 승진하였다. 그러나 1645년 청나라 군대가 양자강을 건너 공격해 오자 홍광제와 마사영은 제거되었으며 완대성도 金華로 도주하였으나 그곳의 紳士¹⁴⁾들로 부터 쫓겨났다. 금화성이 함락되자 완대성은 청군에 투항하였으며 선하령을 공격하는데 참여하였다가

10) 완대성이 남경으로 언제 이주하였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분분하다. 曹汎(1982)은 완대성이 관직에서 쫓겨난 후 회녕과 남경을 왕래하다가 승정 8년(1635)에 농민의 반란을 피해 남경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楊超伯(1978)은 이보다 앞서 승정 5년(1632)에 남경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았다. 이 문제는 승정 7년(1634)에 쓰여진 「아서」의 “나의 거처는 난강과 거리가 가까와...”라는 말에 근거하여 난강의 위치를 비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關鐸(1931)은 완대성이 「아서」를 회녕에서 쓴 것으로 추정하여 난강은 회녕부근에 있는 것으로 추측하였는데, 楊超伯의 고증에 의하면 이것은 잘못된 추정으로 판단된다.

11) 『詠懷堂詩集』은 正集 4권, 外集 甲, 乙部가 있는데, 승정 8년(1635)까지의 시를 모아 이해에 출간하였다. 승정 9년 이후의 시는 「丙子詩」, 「戊寅詩」, 「辛巳詩」 등으로 편찬되었다. (曹汎(1982), p. 16.)

12) 曹汎(1982), p. 6.

13) 동림당은 명말의 정치적 혼란과 불안한 사회를 바로 잡으려고 환관파와 대립하여 정치와 사회개혁운동을 추진한 당파이다. 이들의 東林運動은 환관의 전횡, 내각 집권파의 파벌적 정치에 반대하는 운동이며, 나아가 里甲制의 붕괴 과정에서 초래된 사회경제 체제의 위기를 둘러싼 정치투쟁으로서 일원적인 황제전제 지배체제에 반대하고 分權共治의 군주주의를 표방하였다. 동림당은 정치와 사회개혁운동을 추진하고 환관파와 정치투쟁을 전개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나 그들의 비타협적 도덕주의는 당쟁을 격화시켜 결과적으로 명제국의 멸망을 초래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申採湜(1994), p. 558.)

14) 신사계층은 명대의 지방에서 큰 힘을 발휘한 계층으로 縉紳, 鄉紳 혹은 鄉官이라고도 하는데, 대부분 지주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양과 학식을 갖춘 지식인층이라는 점에서 송대의 사대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신사는 관직경력자(휴직·퇴직 관료, 進士)와 관직에 나가지 못한 官位 지방 학위소지자(舉人, 貢生, 監生, 生員) 등을 포함하는 정치·사회적인 지배계층을 총칭한다. (申採湜(1994), pp. 566-557.)

사망하였다.¹⁵⁾¹⁶⁾ 이러한 완대성의 정치적인 이력은 그의 서문이 붙어있는 『원야』가 청대에 들어 보급되지 못한 이유가 되었다.

2) 曹履吉

조이길의 자는 元甫이며 호는 根遂인데 姑孰(현재의 안휘성 當塗현) 사람으로서 생존년대는 미상이다. 그는 탁월한 시인이자 서화에도 뛰어난 문화계의 명사였다. 『博望山人稿』, 『漁山堂稿』, 『携謝閣稿』, 『靑在堂稿』, 『辰文閣稿』 등을 저술하였다. 그는 만력 44년(1616년)에 완대성과 같이 진사가 되었는데 완대성과는 특히 친하였으며¹⁷⁾ 승정 년간에 河南提學檢事를 역임하였다.

조이길은 계성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준 인물로서, 그와의 교류는 계성에게 있어서 행운이었다. 계성은 승정 4년(1631) 왕사형의 오원을 조영하고 이곳에서 왕사형을 통하여 조원보를 알게되었는데, 조원보는 오원에 대하여 매우 칭찬하면서 그러한 정원의 조영방법을 글로 써서 남기기를 권유하였다. 이에 계성이 이미 『원목』이란 이름으로 저술해 놓은 책을 내보이자 그 내용에 대해 「開闢」이라고 감탄하며 책의 제목을 『원야』로 바꾸어 주었다. 조이길과 같은 인물이 계성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였으므로 완대성 또한 계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계성의 저술이 『원야』라는 이름으로 후세에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조이길의 안목에서 비롯된 것이다.

3) 鄭元勳

정원훈의 자는 超宗이며 호는 惠東으로서 안휘성 歙縣人이다. 명 만력 26년(1598)에 태어나

서 승정 16년(1643)에 진사가 되었는데 이듬해에 살해되었다. 그는 시화에 능하였으며 『媚幽閣文娛』를 저술하였다. 정원훈과 계성은 16살의 나이 차가 있지만 친구로서 가장 오래 사귀었다. 계성은 승정 7년(1634)에서 8년(1635) 사이에 정원훈을 위하여 영원을 조영하였으며, 정원훈은 승정 8년(1635)에 『원야』에 「제사」를 써주었다. 여기서 계성의 造園撰山 능력을 다음과 같이 극찬하였다.

지역과 사람은 제각기 서로 다른 조건이 있는데 그러한 객관적 조건을 잘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계성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성의 남쪽에 조성한 원림을 예로들면, 그곳은 갈대밭과 버드나무 언덕사이에 있어 면적이 아주 협소하였는데 계성이 간략하게 구획을 지어 농자 신령하고 그윽한 경관을 나타내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나 또한 젊었을 적부터 원림의 조성에 대한 능력을 자부하고 있었지만 계성에게 비교한다면 집도 지을 줄 모르는 비둘기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세상에는 운치를 숭상하는 이롭난 선비들이 적지 않은데 만약 자그마한 원림을 지어 경관을 감상하고자 한다면 어찌 계성에게 그 방법을 묻지 않을 수 있겠는가?¹⁸⁾

「제사」 전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정원훈도 계성 못지않게 원림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와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원야』에 대해서 정원훈은 미래에 이책이 『考工記』에 버금갈 것이라고 예견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나 칭찬이라기 보다는 원림조영에 대한 지식이 있는 그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계성이 완대성의 서문을 붙여 『원야』를 출간하면서도 일년 뒤 정원훈의 서문을 추가한 이면에는 정원훈이 완대성과는 달리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원림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3. 造園活動

15) 申採湜 (1994), pp. 556-568; 中國人名大辭典 (1982), p. 515, 860, 1736, 1790; 曹汎 (1982), p. 4; 橋川時雄 (1970), p. 17

16) 완대성에게는 阮麗珍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미인이었으며 작곡에도 뛰어났다. 완대성이 청군에 항복하자 그녀는 청나라 某親왕의 愛妃가 되었다가 福王때문에 질투를 받아 순치년간에 독살되었다. 완대성의 작품이라고 알려지는 傳奇 『燕子箋』은 그녀의 작품이라고도 전하여 진다. 이외에도 『夢虎緣』, 『鸞帕血 (난말혈)』 등의 극작도 썼다. 그녀의 자와 생존년대는 미상이다. (橋川時雄 (1970), p. 25.)

17) 완대성은 조원보에게 「寄曹元甫」라는 오언고시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詠懷堂詩』 권2에 실려있다.

18) 「所謂地與人俱有「異宜」，善於用「因」，莫無否若也。即予卜築城南，蘆汀柳岸之間，僅廣十笏，經無否略爲區畫，別具靈曲。予自負少解結構，質之無否，愧如拙鳩。宇內不少名流韻士，小築臥游，何可不問途無否？」(鄭元勳「題詞」)

<표 1> 計成의 造園活動

순서	정원명	위치	조영연대	원림주	원림주의 지위	원림주의 성격
1	東第園	진릉성 동쪽 (현 상주옛성의 동수문 내, 수화교의 북쪽)	1623-1624	吳玄	江西省 參政	퇴직 관료
2	寤園	난강 서쪽 (현 의정시 서쪽)	1631	汪士衡	中翰	졸부
3	影園	양주성의 남쪽 (현양주성 성벽 옆 강가운데 섬, 하화지의 북쪽, 서문교의 남쪽)	1634-1635	鄭元勳	후에 進士가 됨	시인, 화가

계성이 조영한 일련의 정원들 중에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한 곳도 없고 다만 약간의 단편적인 기록들만 전해지고 있다. 이들 기록을 기초로 하여 계성의 정원조영 활동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1) 常州 吳玄의 東第園

계성은 중년이되어 강소성으로 돌아와 우연한 기회에 조원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완전한 형태를 갖추어 만든 최초의 정원이 바로 오현을 위해 만든 상주의 동계원이다. 동계원의 포국과 경물의 배치, 차경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다만 『원야』 「자서」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하여 이 정원의 일단을 추측할 수 있다. 진릉은 오늘날의 강소성 常州市를 가리킨다.

때마침 진릉 출신으로서 감서성 참정을 지낸 吳又于公이 소문을 듣고 나를 부르셨다. 당시에 오공은 진릉성의 동쪽에 주택과 원림을 조성할 터를 하나 마련하였는데, 그 곳은 바로 원나라 때 고관인 온국한달(溫國罕達)의 옛 원림터로서 면적은 겨우 15무에 지나지 않았다. 공은 이 땅을 나에게 보여 주면서 “이 15무 중에서 10무에는 주택을 짓고, 나머지 5무에는 온국공 사마평의 독락원을 본딴 원림을 꾸미고 싶다”고 하셨다.

내가 그 터의 지형을 살펴보니 높이는 매우 높았고, 그곳에 흐르는 물의 수원을 찾아보니 매우 깊었다. 키 큰 나무들은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솟아 있었고, 뒤틀린 나무가지는 아래로 늘어져 땅을 덮고 있었다.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곳의 지형은 기복이 심하므로 구태여 돌을 쌓아 땅을 높일 필요도 없고 땅을 파내어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키 큰 나무들은 높낮이에 차이를 두어 언덕의 허리께에 자라게 하고, 구불구불 뒤틀린 나무뿌리는 돌틈에 박히도록 자라게 하면 완전히 산수화의 뜻과 같게 될 것입니다. 또 물가를 따라 올라 가면서 누와 정과 대를 지어 그 그림자가 지당의 수면에 여기저기 어리게 하고, 골짜기를 만들고 그 위로 희담을 날아가듯 포치시키면 뜻밖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원림이 다 이루어지니 오공은 기뻐하면서 “원림의 입구에서 길을 따라 들어가 다시 나오기까지 걸음걸이를 재어보니 4리 밖에 되지 않지만 강남땅의 빼어난 경치를 모두 이 한 곳에 다 갖춘 것 같구나!” 하였다. 원림 속에 따로 작은 집을 지었는데 비록 한 무더기의 작은 산과 한 말 크기의 작은 방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한 기이한 발상이 충분히 다 발휘된 것임을 느껴 날이 거듭하여 갈수록 기뻐했다.¹⁹⁾

園林主와 관련하여 「자서」와 『원야주석』(1981)에는 몇가지 오류가 있다. 「자서」의 원문에는 오현을 ‘晉陵方伯吳又予公’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나 又予의 ‘予’는 ‘于’의 誤字이다. 다시말해 오현의 字는 ‘又予’가 아니라 ‘又于’이다.²⁰⁾ 그리고 그의 이름은 ‘吳元’이라고도 알려지는데 이것은

19) “適晉陵方伯吳又予公聞而招之。公得基于城東，乃元朝溫相故園，僅十五畝。公示予曰：“斯十畝爲宅，餘五畝，可效司馬溫公獨樂製”。予觀其基形最高，而窮其源最深，喬木參天，蝨枝拂地。予曰：“此製不第宜投石而高，且宜搜土而下，令喬木參差山腰，蟠根嵌石，宛若畫意；依水而上，構亭臺錯落池面，篆壑飛廊，想出意外。”落成，公喜曰：“從進而出，計步僅四里，自得謂江南之勝，惟吾獨收矣”。別有小築，片山斗室，予胸中所蘊奇，亦覺發打略盡，益復自喜。”(『自序』)

20) 「自序」에서 ‘又予’라고 하였기에 최근에 나온 모든 책들은 이를 따라 전부 誤記하고 있다. 명간 원본 역시 오기하였다. 오현의 저서인 『率道人素草』의 「自叙」에는 ‘延陵吳玄又于甫草’라고 되어 있고, ‘玄之又玄’이라는 양각의 도장이 찍혀있다. ‘玄之又玄，衆妙之門’은 노자의 『道德經』에 나오는 말인데 『率道人素草』의 魚尾에는 ‘衆妙齋’라고 써여 있다. 일반적으로 이름과 字의 의미는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데 오현의 자 又于의 ‘于’는 후철로 쓰여졌기에 이름 ‘玄’과 字 ‘又于’는 바로 ‘玄之又玄’을 의미하는 것이다. 康熙시대의 『常州府志』는 오현 형제의 이름을 ‘吳元(玄)字又于’, ‘吳亮字采于’, ‘吳奕字世于’라고 기록하였다. 세사람의 외자 이름에는 전부 ‘于’자가 사용되었으며 字에는 전부 ‘于’자가 들어 있다. (曹汎 1982, p. 10, 16.)

清康熙帝의 이름자를 피하기 위하여(避諱) 이 시대 이후의 地方志 등에서 ‘宐’을 ‘元’으로 고쳐 기록한 것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陳植교수가 『원야주석』(1981)에서 “吳元의 字는 又予”라고 한 것은 이름과 자를 전부 틀리게 말한 것이다.²¹⁾

오현은 明嘉靖 44년(1565)에 태어났으며 萬曆 26년(1598)에 進士가 되었다. 처음에는 河南省 南陽府의 儒學教授가 되었고, 나중에는 刑部本科, 刑部廣西司, 貴州司, 浙江司 등에 임명되어 東昌府와 嚴州府를 두루 다스렸다. 그 뒤 江西布政使司 右參政을 역임하였으며 저서로서 『率道人素草(率道人集)』가 전해지고 있다. 오현이 방백이었다 함은 江西布政使司 右參政을 역임했음을 말하는 것이다.²²⁾ 오현은 『常州府志』 등에 성품이 강직하고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한 인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 그는 정치적으로 魏忠賢파에 속하는 관료였다. 오현은 관직에서 물러난 후 만력에서 천계년간에 올린 상소문들을 한 데 모아 『吾徵錄』을 편찬하였는데 그 내용인 즉 전부다 東林黨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서 오현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오현의 원림의 이름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알려지지 않는다. 조신(1982)은 이곳의 편액에 ‘東第環堵’라고 쓰여 있었고, 「자서」에 “오공은 진릉성의 동쪽에 주택과 원림을 꾸밀 자리를 하나 마련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리고 「上梁祝文」에 ‘獨樂名園環堵宮’이라는 기록 등이 있음을 종합하여 오현의 저택이 당시에 ‘東第’라고 불려졌음에 틀림없이 이 집에 부속되어 있는 5무의 정원을 ‘東第園’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라고 하였

다. 아울러 동제원의 위치를 오늘날 常州 옛성의 東水門안에 있는 水華橋 북쪽이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²³⁾

오현의 동제와 그 부속 동제원의 조영 년대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록은 없다. 오현의 문집 『率道人素草』에 수록되어 있는 詩들은 만력 14년(1586) 부터 천계 6년(1626) 사이에 쓰여진 것들이며 천계 7년(1627)에 이 책은 완성되었다. 『술도인소초』 권4 「祝冊」에는 「小宗祠成 羣恩地贈祝文」이 있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할 때, 동제나 동제원 속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小宗祠는 천계 3년(1623)에 건립되었다. 아울러 「상량축문」은 동제의 건물이 천계 3년 4월에 건축된 것으로 추측하게 한다. 따라서 조신(1982)은 오현의 동제가 천계 3년(1623)에 건설되었을 것이며 동제원은 같은 해나 아니면 늦어도 다음 해인 천계 4년(1624)에 완공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²⁴⁾ 천계 3년(1623)이면 계성의 나이 42세일 때인데 이는 「자서」에서 “나는 중년에 강소성으로 돌아와 운주에 거처를 정하였다”는 기록과 일치하므로 조신의 추측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오현의 동제원은 계성의 표현을 빌리면 ‘傍宅地’에 조성된 정원이다. 실제로 〈相地·傍宅地〉의 “(원림은 그 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 5무에 불과한들 어떻겠는가? 사마광의 독락당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이다”²⁵⁾라는 구절은 위에서 인용한 「자서」의 동제원의 내용과 일치한다. 아울러 조신(1982)은 방택지절에 “경미한 이몸 천지 사이에 기탁하여 살고 있으니 손님을 대하여 청백의 눈을 가려 뜯²⁶⁾ 필요가 있겠는가? 실로 천년에 전해질 만한 일을 하고 있으니 백 년밖에 살지

21) 陳植 (1981), p. 39. 『木經全書』와 중국영조학사본(1933)에도 吳又予로 되어 있어 이후의 번역서들은 모두 똑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Hardie (1988), p. 35, 126; 金聖雨·安大會 (1994), pp. 36-37.). 『園治注釋』(1988)에서는 본문을 ‘吳又予’로 고치고 이름도 吳玄으로 정정하였지만 각주에서는 다시 字를 又予로 하여 혼란을 빚고 있다(陳植 (1988), p. 42, 45.).

22) 명대의 관제에서 布政司와 按察司는 넓은 지역을 담당하였으므로 布政使司에는 종2품 左右 布政使 각 1인을 두고 그 밑에는 종3품 좌우 參政을 약간명 두었으며 그 밑에 다시 參議를 두어 업무를 분장하였다. 布政使는 다른 말로 ‘藩臺’, ‘藩司’, ‘方伯’, ‘東司’라고도 불렀는데 오현은 종2품 江西布政使가 아니라 종3품 江西參政이었다. 「자서」에서 오현을 ‘방백’이라 한 것은 布政使司 右參政을 통상 한 단계 높은 ‘布政’으로 약칭하였기 때문이다.

23) 曹汎 (1982), p. 12.

24) 曹汎 (1982), p. 12.

25) “五畝何拘, 且效溫之獨樂” (〈相地·傍宅地〉)

26) ‘清白’은 清白眼을 가리키는데 이는 晉代의 阮籍이 사람을 清白眼으로 가려 보았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완적은 禮敎에 구속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청백의 눈을 구분하여 뜯 수 있었다. 그래서 예절이나 잘 지키는 세속의 선비를 보면 흰자위만으로 눈을 떠서(白眼) 대우하였는데 嵇康과 같은 고상한 선비를 보자 그제서야 검은 눈동자(淸眼)를 드러내었다 한다.

못하는 인생인 줄 어찌 알겠는가?”²⁷⁾라는 구절이 갑자기 나오는 것에 대해 이것은 기실 정치적 당쟁에 관여하며 한편으로는 원림속의 즐거움을 찾으려는 오현의 처세태도에 계성이 동의할 수 없음을 은연중에 피력한 것으로 보았다.²⁸⁾ 따라서 계성은 동제원을 지은 경험과 느낌을 『원야』의 〈相地·傍宅地〉에 반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2) 儀徵 汪士衡의 寤園

오원은 『원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원이다. 계성은 오원에 있는 扈冶堂에서 『원야』를 완성하였으며, 조이길이 『원목』을 보고 그 제목을 『원야』라고 고쳐 준 곳도, 계성이 조이길을 통하여 『원야』를 출간하는데 도움을 받은 완대성을 소개 받은 곳도 바로 이 오원이었다. 오원과 관련이 있는 『원야』의 내용은 다음의 세 문장인데 「자서」에는 왕사형의 정원명이 오원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나 「아서」의 내용과 비교할 때 이 정원이 오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무렵 중한 왕사형이 나를 불러 난강 서쪽에 원림을 조성하게 하였는데 이것도 그의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었다. 그리하여 又于公을 위해 조성한 원림과 더불어 양자강의 남북에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²⁹⁾ (계성 「자서」)

나의 거처는 난강과 거리가 가까와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여 가끔씩 寤園과 柳淀사이를 왕래하면서 하루, 이를 묵기도 하였으며 그곳의 경물을 즐겁게 감상하였다.³⁰⁾ (완대성 「아서」)

어떤 廊은 산허리에 서려 있기도 하고, 어떤 낭은 물가에 까지 닿아 있기도 하며, 꽃발을 지나고 골짜기를 타고 넘어서 구불구불 끝없이 낭이 이어지게 한 곳도 있으니 寤園의 篆雲廊이 바로 이와 같은 양식을 채택하고 있다.³¹⁾ (《옥우·낭》)

정리하면, 계성은 왕사형을 위하여 鑾江의 서쪽에 원림을 조성하였으며 이 또한 성공적이어서 오현의 동제원과 함께 명성을 떨쳤고, 난강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완대성은 오원에 자주 놀러 왔으며, 오원속에는 전운낭이라는 건물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원의 조영연대는 동제원이 조영되고 난 뒤부터 늦어도 「자서」가 쓰여진 승정 4년(1631) 늦가을까지는 조영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난강은 오늘날의 강소성 儀徵현을 가리킨다. 關鐸은 『원야』에 「아서」를 써준 완대성이 회녕인이기 때문에 난강은 회녕근방에 있다고 하였는데,³²⁾ 이에 대해 楊超伯은 『의진현지』의 기록을 근거로 난강은 儀眞, 다시말해 儀徵(청 雍正 2년(1724)에 의정으로 개명함)을 가리킨다고 하였다.³³⁾ 완대성이 오원에 빈번히 왕래하고 『원야』에 「자서」를 쓴 것은 이미 남경에서 살 때의 일인 것으로 판단된다. 감탁의 오류는 완대성이 「아서」를 쓴 이후에 남경으로 피신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자서」의 “又于公을 위해 조성한 원림과 더불어 양자강의 남북에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는 것은 양자강 이남의 상주(진릉)에 조영한 동제원과 양자강 이북 의징(난강)에 조영한 오원이 명성을 얻었다는 것을 말한다.

오원의 주인인 왕사형에 관한 기록은 없다. 청康熙시대의 『儀眞縣志』는 모두 3종이 있지만³⁴⁾ 왕사형에 관한 傳은 없다. 士衡은 이름이 아니라 자였으므로 성이 汪씨이고 자가 士衡인 사람을 세 종류의 縣志에서 찾아보아도 또한 없다.³⁵⁾ 『儀眞縣志·選舉志』(1668)와 『儀眞縣志·選舉表』(1718), 『儀徵縣志』(1850)에는 “승정 12년(1639) 汪機는 재물을 바쳐 文華殿 中書에 임명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들 기록을 토대로

27) “輕身尙寄玄黃, 具眼胡分青白. 固作千年事, 寧知百歲人” (〈相地·傍宅地〉)

28) 曹汎 (1982), p.11.

29) “時汪士衡中翰, 延予鑾江西築, 似爲合志, 與又予公所構, 並聘南北江焉.” (「自序」)

30) “鑾江地近, 偶問一艇於寤園柳淀間, 寓信宿, 夷然樂之.” (阮大鍼「治叙」)

31) “或鑿山腰, 或窮水際, 通花渡壑, 蜿蜒無盡, 斯寤園之篆雲也.” (《屋宇·廊》)

32) 關鐸 (1931), pp.24-25.

33) 楊超伯 (1978), pp.11-12; 주10) 참조.

34) 康熙 7년(1668)에 胡崇倫이 만든 『儀眞縣志·胡志』가 있으며, 강희 32년(1693) 馬章玉이 만든 『儀眞縣志·馬志』가 있고 강희 57년(1718) 陸師가 만든 『儀眞縣志·陸志』가 있다.

35) 曹汎 (1982), p.13.

楊超伯은 쯤나라 陸機의 字가 士衡이었고 옛날 사람들의 이름과 호의 의미가 대개 연관이 있었으므로 汪機 또한 호를 士衡으로하고 재물을 바쳐 그 대가로서 中書직을 산 인물, 다시 말해 '汪士衡 中翰'³⁶⁾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하였다.³⁷⁾ 왕사형이 왕기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조신도 동의하는데 매우 설득력 있는 추측으로 판단된다.

왕기란 인물은 西園이란 정원을 가지고 있었다. 『儀眞縣志』(1718)에는 “西園은 新濟橋에 있는데 中書인 왕기가 만들었다. 원림의 내부에는 높은 봉우리와 굽이치는 물길이 있으며 정과 대의 경치가 빼어나고 이름난 관리들의 제영시가 매우 많았다”라는 기록과 “신제교는 현의 서쪽 5리 되는 곳에 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을 통하여 왕기의 정원의 이름이 西園이며 의징성 서쪽의 신제교 부근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서」의 “왕사형 중한이 나를 불러 난강의 서쪽에 원림을 조성하게 하였다”라는 기록과 또한 합치되는데 이것은 왕기가 왕사형이라는 추측을 한층 더 뒷받침해 준다.³⁸⁾

이렇듯 두 인물이 동일인일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지만 두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첫째, 『의진현지』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12년(1639)에 왕기가 중서벼슬을 샀다고 하였지만 이보다 8년전 11년(1631)에 쓰여진 『원야』 「자서」에는 벌써 왕사형의 벼슬을 중한이라고 밝히고 있고, 9년(1636)에 완대성이 쓴 「잠각에 앉아 왕사형 중한을 회고한다 坐湛閣感憶汪士衡 中翰」는 시는 이미 왕사형이 9년(1636) 이전에 사망했음을 보여주므로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정원의 이름이 완대성의 「자서」에는 ‘오원’

으로, 『의진현지』에는 ‘서원’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조신은 12년에 왕기가 중서가 되었다는 것은 2년의 오기가 아닐까하는 추측을 하고 있으며,³⁹⁾ 楊超伯은 처음에 오원으로 칭했다가 이후에 영원으로 고쳤는지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⁴⁰⁾

아울러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정원이 있다. 『儀眞縣志』(1718)에는,

榮園은 新濟橋의 서쪽에 있으며 12년(1639)에 왕씨가 만들었는데 도연명의 ‘신바람나게 영화를 쫓는다 欣欣向榮’의 귀절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 원림의 배치가 자연스러워 강북에서 절경을 이루었는데 높은 벼슬아치들이 왕대하고 많은 연회가 이곳에서 베풀어 졌다. 현령인 姜探⁴¹⁾은 다 들보지 못하자 “내가 겨우 왕씨 집안의 문지기이냐?”라며 화를 내었다. 이에 왕씨는 두려워져서 원림을 허물어 버렸다. 그래도 둘 하나가 아직 남아 있었는데 영롱하게 우뚝 솟아있어 사람들이 ‘시四明’이라고 불렀다.

라는 榮園에 대한 기록이 있다. 楊超伯은 영원이 강채란 인물이 현령으로 있던 5년(1632)부터 10년(1637) 사이에 만들어 졌음은 계성이 오원을 조영한 것과 비슷한 시기이므로 왕씨의 영원이 왕사형의 오원일지도 모른다면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⁴²⁾ 그러나 조신은 元의 『廣陵詩事』 권6의 “中翰 汪士楚는 벼슬이 없는 큰 부자로서 榮園을 만들어 이름을 세상에 알렸다”라는 기록에 의거하여 『의진현지』의 ‘西園’은 확실히 ‘寤園’의 별칭이지만 ‘榮園’은 이와는 별도의 정원, 즉 또다른 중한 汪士楚의 정원이라고 하였다.⁴³⁾ 이에 대해 陳植은 『의진현지』(시대, 작자 미상)의 “왕사초는 청 강희시대에 진사가 되었고 왕씨의 옛 원림을 구입하여 정원으로 삼았는데 그 이름은 ‘榮園’이다”라는 기록을 인용

36) 中翰과 中書는 같은 말이다. (陳植 (1988), p. 45.)

37) 楊超伯 (1978), p. 13.

38) 楊超伯 (1978), pp. 13-14; 曹汎 (1982), p. 13.

39) 曹汎 (1982), p. 13.

40) 楊超伯 (1978), p. 14.

41) 『縣志·人物志』에 “姜探의 자는 如農이며 산둥성 萊陽사람이다. 5년(1632)에 진사에 합격하여 의진현의 현령이 되었다. ... 여러 상인들이 흑시라도 상례로서 공물을 바치더라도 번번히 물리쳤다. ... 을해년이 되어서 新城을 열었는데도 강채는 편리하지 아니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 10년(1637)에 비로소 치적이 최고가 되어 禮部給事中에 선발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어 강채가 의진현의 현령이었던 것은 5년(1632)에서 10년(1637) 사이임을 추측할 수 있다.

42) 楊超伯 (1978), p. 14.

43) 曹汎 (1982), p. 13.

하여 榮園과 寤園은 같은 것으로 보았다.⁴⁴⁾

이상과 같이 汪士衡의 寤園, 汪機의 西園, 汪士楚의 榮園 등은 비슷한 이름과 동일한 벼슬의 庭園主, 비슷한 조영시기, 비슷한 장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이들 정원이 동일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기록들이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기 때문에 같은 것이라고 단정을 내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오원에 관해서 완대성은 특히 많은 시를 지었는데⁴⁵⁾ 이들 시와 『원야』를 통해 살펴 볼 때, 오원에는 湛閣(잠각), 靈巖, 荊山亭, 篆雲廊, 扈治堂 등이 있었다.

3) 揚州 鄭元勳의 影園

영원은 『원야』가 출간된 승정 7년(1634)부터 조영되기 시작하여 그 이듬해인 승정 8년(1635) 계성의 나이 54세에 완성되었다.⁴⁶⁾ 영원 역시 오늘날 전해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영원에 관련된 기록은 비교적 많은데, 정원훈의 「影園自記」, 茅元儀의 「影園記」, 黎遂球의 「影園賦」 등과 陳肇基, 丁孕乾, 萬時華 등의 「寄題影園詩」, 그리고 『揚州畫舫錄』, 『揚州攬勝錄』 등의 문헌들이 있어 이들의 기록을 통하여 그 면모를 추측할 수 있다. 영원은 양주성 서남쪽 성벽과 인접한 강가운데 있는 긴모양의 작은섬 위에, 다시 말해 현재의 荷花池의 북쪽이자 西門橋의 남쪽지역에 위치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⁴⁷⁾

영원은 계성이 조영한 세 정원중에서 가장 나중의 작품일 뿐만 아니라 『원야』의 출간이후에 조

영되었기 때문에 그 예술적 완성도가 가장 뛰어나고 『원야』의 정원이론이 총체적으로 구현된 정원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榮園과 花圃를 제외하면 소규모의 면적이었지만 우세한 경관요소인 물과 기존의 지형지세를 잘 이용하고 주위의 경관을 적절하게 차경하여 공간이 가지고 있는 제약점들을 극복하였다. 이것은 『원야』에서 계성이 주장하는 핵심 이론인 「巧於因借, 精在體宜」의 이론을 구현한 것이다. 예를 들어 「影園自記」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앞뒤로 물이 흐르며 隔水가 구불구불 흐르고 蜀岡이 기록을 이루어 산세를 형성하였다. 사방으로 버드나무 언덕이 펼쳐져 있고 연꽃이 흐드러진 넓은 물에는 물억새가 자라고 있다. 물은 맑고 고기잡이 배 오고감에 쭈임이 없다. ...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다 보니 미로 같은 누각과 평평한 산이 늘어서 있고 멀리 강남의 산들이 선명하고 맑게 보인다. 땅위에는 버드나무 그림자, 물 그림자, 산 그림자가 드리운다.⁴⁸⁾

이 글에 묘사된 布局과 選景, 造景의 특징을 살펴보면, 계성은 기존의 물길을 이용하여 연못을 만들고, 기존의 지형을 이용하여 높은 가산을 쌓지 않고서도 멀리있는 강남의 산들의 풍경을 차경할 수 있도록 조영하였다. 정원훈이 「제사」에서 「因(객관적 조건)을 이용함에 있어서 계성만한 인물도 없다」고 밝혔듯이 계성의 「巧於因借」는 오현의 동계원 조영과 왕사형의 오원 조영의 경험을 거쳐 영원에서 보다 심화되고 완전하게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들어 놓은 바를 보면 그 조영이 매우 자연스럽고 땅과 물과 돌과 나무가 모두 알맞게 조화를 이루었다. 원림 속에 들어가본 즉 실제의 경관과도 같아 참으로 하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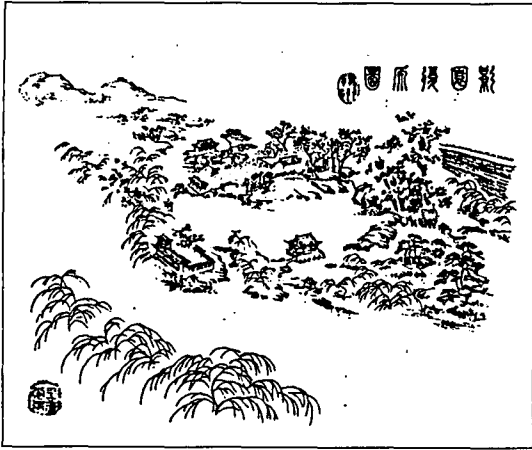
44) 陳植 (1988), p. 16.

45) 오원이라는 말은 완대성의 시에 자주 나온다. 완대성의 시집인 『詠懷堂詩集』 권2의 「杪秋同李烟客周公穆劉爾敬張損之犀齋韓劉慈玉宗白集汪中秘士衡寤園」, 『詠懷堂詩外集』 乙部の 「羅繼銘張元秋從采石汎舟眞州相訪遂集寤園小酌」, 「宴汪中翰士衡園亭」, 『詠懷堂詩』 권3의 「客眞州喜杜退思至即招集汪氏江亭」, 권2의 「同吳仲立張損之周公穆集汪士衡湛閣」, 『詠懷堂丙子詩』 권하의 「坐湛閣感憶汪士衡中翰」 등이 있다.

46) 『五架書屋文苑實錄』에는 “정원훈은 승정 5년(1632)에 성의 남쪽에 廢園을 하나 가려 장만하여 장차 어머니를 봉양하고 독서할 장소로 삼으려 하였다. 그때 마침 董其昌이 양주에 있었는데 그곳이 버드나무 그림자, 물 그림자, 산 그림자 사이에 있다는 의미로 「影園」이라고 이름을 짓고 편액을 써주었다. 승정 7년(1634)에 진강의 조원명가인 계성의 도움을 받아 이듬해에 완성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陳植 (1988), p. 41.)

47) 吳肇基 (1985), pp. 167-169.

48) “前後夾水, 隔水蜀岡, 蜿蜒起伏, 盡作山勢. 環四面柳萬屯, 荷千餘頃, 菴養生之. 水清而多魚, 漁樵往來不絕. ... 昇高處望之, 迷樓·平山皆在頂背, 江南諸山, 歷歷青來. 地盡在柳影·水影·山影之間.” (鄭元勳 「影園自記」); 曹汛 (1982), p. 14. 와 吳肇基 (1985), p. 169. 에서 재인용.



(그림 3) 영원복원도

이 만든 것⁴⁹⁾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또한 가까운 곳의 '隔水及蜀岡' 뿐만 아니라 먼곳에 있는 '강남의 여러산'의 풍경도 차경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원림과 그 원림 속에 있는 무성한 나무와 경물 또한 차경하였다. 그래서 영원의 玉勾草堂에서 바라다 보면 "염씨원, 풍씨원, 원씨원 등도 모두 눈에 들어왔는데 비록 원림은 무너졌지만 수목은 울창하여 마치 그 나무들이 영원에 있는듯 하였다."⁵⁰⁾ 影園 속의 경물은 "진부한 격식을 버리고 질박한 풍취를 지녔다."⁵¹⁾ 건축물은 산뜻하고 우아하였으며 주위의 환경과 결합하였고 건물의 장식도 모두 적당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원야』가 강조한 "상투적인 것을 배제하고 常套俱裁", "격식은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製式新番"는 것과 일치된다.

승정 17년(1644) 명이 망하자 동란중에 정원훈은 사망하였다. 청의 군대가 들어온 후 정원훈가의 가세는 쇠미해졌고 영원은 황폐되었다. 강희년간에 이르러서는 그 터조차 희미해 졌다.⁵²⁾ 청 乾隆 35년(1770) 정원훈의 자손이 王蓬心에게 부탁하여 『影園圖』를 그렸는데 이 그림 역시 지금은

전하지 아니한다.

4) 기타

이밖에도 「자서」와 「야서」에는 계성의 造園掇山 작품으로서 계성이 진강으로 귀향한 후 우연한 기회에 조영한 假山과 완대성의 원림에 대한 기록이 일부 보이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보다 자세히 알 수는 없다.

Ⅲ. 『園冶』에 관한 考察

1. 『園冶』의 出刊 및 構成

1) 『園冶』의 出刊

『원야』는 명 승정 4년 신미년(1631) 계성의 나이 50세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원야』의 출간과 관련하여 몇가지 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책의 이름이 처음부터 『원야』가 아니었다는 점과 책의 완성과 출간사이에는 몇년간의 시차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저자 계성이 직접 쓴 「자서」와 발문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계성은 「자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원림을 만드는 이론과 기법에 관한 초고를 틈이 날 때마다 써서 책으로 묶어 『園牧』이라고 이름을 붙여 간직하고 있었다. 언젠가 고속의 조원보선생이 오원에 놀러 오셨는데 주인인 왕사형은 나도 같이 어울리게 하였기에 이틀밤을 이곳에서 함께 묵었다. 조원보선생은 이 원림이 마치 형호와 관동의 그림과 같다고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글로 표현하면 좋을 것이라고 감탄하셨다. 이에 나는 써두었던 초고를 꺼내어 선생에게 보이니 선생은 "이는 천고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다. 어찌 책이름을 『園牧』이라 할 것인가? 이것은 그대가 창조한 것이니 『園冶』라고 고쳐 부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⁵³⁾

49) "見所作者, 卜築自然. 因地因水, 因石因木. 卽事其間, 如照生影, 厥惟天哉." (劉侗「影園自記」跋文)

50) "閻氏園, 馮氏園, 員氏園皆在目, 雖頽而茂. 竹木若爲吾有" (鄭元勳「影園自記」)

51) "盡翻陳格, 庶幾有朴野之致" (鄭元勳「影園自記」)

52) 강희년간의 汪構은 "영원의 옛터를 찾아 尋影園舊址"라는 시를 남겼으며, 건륭년간의 吳均, 江昇 등도 "영원의 옛터를 찾아 尋影園故址"라는 시를 남겼다. (曹汎 (1982), p. 15.)

53) "暇草式所製, 名『園牧』爾. 姑執曹元甫先生遊于茲, 主人偕予盤桓信宿. 先生稱讚不已, 以爲荆關之繪也. 何能成于筆底? 予遂出其式視先生. 先生曰: "斯千古未聞見者, 何以云『牧』? 斯乃君之開闢, 改之曰『冶』可矣."" (「自序」)

따라서 이책의 제목은 원래 『원목』이었으며 이 「자서」가 쓰여지기 이전에 이미 그 대강의 초고가 완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만 공개하지 않았다가 조이길의 칭찬과 추천으로 말미암아 이책을 『원야』라고 이름을 고치고 이책의 앞부분에 「자서」를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책의 형태는 본문과 「자서」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미출간된 형태인 것이다.

이 편리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무렵 그가 기식하던 완대성의 도움을 받아 출간하고 이러한 사정을 책의 발문에 써놓았다. 이때 완대성은 이책을 위하여 서문 「冶叙」를 써주었다. 따라서 1634년에 출간된 『원야』는 계성의 발문과 완대성의 「야서」를 덧붙인 형태를 지니게 된다. 1년 뒤 이책에 정원훈의 「제사」가 추가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표 2〉 『園冶』의 출간 과정

년 도	1631년 이전	1631년	1634년	1635년
제 목	園 牧	園 冶	園 冶	園 冶
내 용	본 문	자 서 본 문	야 서 자 서 본 문 발 문	제 사 야 서 자 서 본 문 발 문
상 태	초식형태	완 성	출 간	

이로부터 3년 뒤인 승정 7년(1634) 계성은 두 아들이 조원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 세상 사람들

2) 『園冶』의 構成

『원야』는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興造論」과 「園說」로 나누어져 있다. 「원설」은 다시 〈相地〉, 〈立基〉, 〈屋宇〉, 〈裝折〉, 〈門窗〉, 〈牆垣〉, 〈鋪地〉, 〈掇山〉, 〈選石〉, 〈借景〉의 10부분으로 나누어져 제1권과 제3권에 실려있으며, 제2권은 〈장절〉중의 난간과 그 도식만을 수록하고 있다. 이책에 실린 도식은 235개이다. 그 구체적인 구성은 〈표3〉과 같다

〈표 3〉 『원야』의 구성

卷	章/節	篇	圖式	
서 문	야 서 제 사* 자 서			
본	권1	홍조론		
		원 설		
		1. 상지	1)산림지 2)성시지 3)촌장지 4)교야지 5)방택지 6)강호지	
		2. 입기	1)청당기 2)누각기 3)문루기 4)서방기 5)정사기 6)낭방기 7)가산기	
문	권2	3. 옥우	1)문루 2)당 3)제 4)실 5)방 6)관 7)누 8)대 9)각 10)정 11)사 12)헌 13)권 14)업 15)낭 16)오가람 17)철가람 18)구가람 19)초가 20)중연 21)마각 22)지도	옥우도식 11도
		4. 장절	1)병문 2)양진 3)호혁 4)풍창	장절도식 2도 혁령식 60도
문	권3	난간		난간도식 100도
		5. 문창		문창도식 31도
		6. 장원	1)백분장 2)마전장 3)누전장 4)난석장	누전장도식 16도
		7. 포지	1)난석로 2)아자지 3)빙렬지 4)제전지	전포지도식 15도
		8. 철산	1)원산 2)청산 3)누산 4)각산 5)서방산 6)지산 7)내일산 8)초벽산 9)산석지 10)금어강 11)봉 12)만 13)암 14)동 15)간 16)곡수 17)폭포	
		9. 선석	1)태호석 2)곤산석 3)의홍석 4)용담석 5)청룡산석 6)영벽석 7)현산석 8)선석 9)호구석 10)영석 11)산병석 12)황석 13)구석 14)금천석 15)화석강 16)옥합석자	
	10. 차경			
			계; 235 폭	

* 「제사」는 「목경전서」에 의하면 「자서」의 앞에 있으나 중국영조학사본에는 「자서」 뒤에 있다.

2 『園冶』의 版本과 書誌的 考察

1) 明清時代의 版本 및 異本

중국에서는 현재까지 『원야』 원본 전권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楊超伯 교수가 북경도서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명나라 시대의 판각본은 겨우 1권만 남아 있고, 이와는 별도로 필름 1, 2 두 권과 명판에 대한 일본필사본 1, 2, 3 전권이 전하고 있다 한다.⁵⁴⁾

현재 완전한 형태의 『원야』는 중국에서가 아니라 일본에서 전해진다. 적어도 일본에는 세가지 종류의 『원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첫 번째는 陳植 교수가 1921년 일본 동경대학에서 유학할 당시, 조립 및 조원학의 권위자인 本多靜六 박사의 연구실에서 보았다는 『원야』이다. 陳植의 회상으로는 이 책은 목판본으로 된 3책으로서 북경서점에서 구했다고 들었다 한다.⁵⁵⁾ 두 번째는 일본 上野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奪天工』이라는 제목으로 된 『원야』와 같은 내용의 책이다. 세 번째는 橋川時雄이 소장하고 있는 『木經全書』라는 제목의 책으로서 내용은 역시 『원야』와 같다.

원본이나 명칭시대의 판본이 중국에서 완전한 형태로 전해지지 않는 것은 이 책을 출간해준 완대성이 당시의 사대부들에 의해 역적으로 낙인이 찍혔기에 그에 의해 출간된 책 또한 청대에 들어와 사람들에게 백안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⁵⁶⁾ 일본에서 완전한 형태의 『원야』가 전해지는 것은 『원야』가 출간되고 60여년 정도 지난 후부터 여러 권이 일본에 전해졌기 때문이다. 『江戸時代 唐船持渡書의 研究』에 의하면 元祿 14년(1701)에 『名園巧式奪天工』 1부 3본이, 正徳 2년(1712)에 『園冶』 1부 4본이, 享保 20년(1735)에 『奪天工』 4부가 일본으로 실려온 것으로 『商船舶載來書目』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⁵⁷⁾ 다시말해

청대에 들어와 『원야』는 『원야』라는 제목뿐만 아니라 『명원교식탈천공』, 『탈천공』 등의 이름으로도 바뀌어 일본으로 전해졌는데, 書目에 기록되지 않은 책도 여러 권 있었으리라는 점을 가정해 본다면 일본에는 많은 수의 『원야』가 수입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지만 왜 『원야』라는 책이름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고 『탈천공』이나 『목경전서』 등의 이름으로 수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는 없다. 아마도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탈천공』이란 말이 많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원야』라는 제목이 완대성에 의해 출간되었다는 누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명의 宋應星의 『天工開物』도 중국에서는 망실되었지만 일본의 내각문고에는 전하고 있는데⁵⁸⁾ 이 책의 제목위에도 『탈천공』이라는 글자가 써있다. 橋川時雄은 『탈천공』이라는 것이 이시대 이러한 류의 서적에서 범용되던 호칭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하였다.⁵⁹⁾

『원야』가 일본에 수입되던 시대는 江戸시대로서 이무렵 일본에는 많은 장서가들이 있었으며 중국에서 들어온 많은 서적들이 일본에서 재판되기도 하고 抄寫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경도서관 소장본과 『탈천공』, 『목경전서』에 대한 전체 사본을 아직 입수하지 못해 자세한 서지적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이차적 기록에 의해 『탈천공』과 『목경전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奪天工

일본 上野圖書館의 內閣文庫속에는 일명 紅葉山文庫本이라고도 하는 『탈천공』이 소장되어 있는데 본 연구자들은 아직 열람하지 못하였다. 이 책에 대해 橋川時雄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서」의 앞페이지에 ‘安慶阮衙藏板如有翻刻千里必治(안경의 완대성의 소장판. 만약에 번각한다면 먼 거리라고 반드시 다스릴 것임)’이라는 14자의 등근모양의 해서체 도장과 ‘愚治堂圖書記’의 6자가 전서체로 새겨진 방

54) 楊超伯 (1978), p.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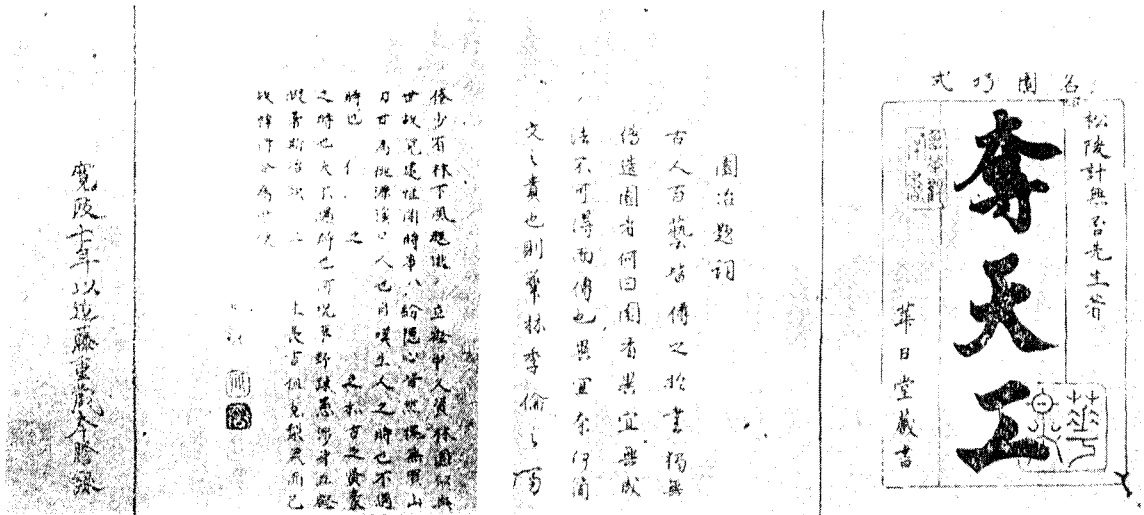
55) 陳植 (1956), p. 17.

56) 陳植 (1978), p. 5.

57) 大庭修 編著 (1968), 『江戸時代唐船持渡書の研究』, 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 (橋川時雄 (1970), p. 35.)

58) 宋應星 (1637), pp. 114-118.; 橋川時雄 (1970), p. 36.

59) 橋川時雄 (1970), p.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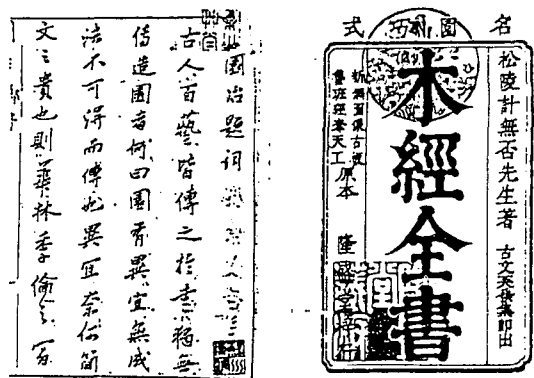
(그림 4) 華日堂藏書 奪天工

형의 도장이 찍혀있다. 「아서」의 끝에는 '皖城劉煥刻(완성의 유소가 각인함)'이라고 새겨져 있어 각인자를 밝히고 있다. 이책의 본문은 페이지마다 9행으로 되어있고 각 행은 18자로 되어있다. 테두리는 가로 13cm, 높이 19.5cm이다. 내각문고의 『漢籍解題』에는 "승정 4년에 본서를 저술했고 그후 乾隆년간에 금서가 되었기에 유포된 것이 적다. 『御書物方日記』의 享保 20년(1735) 4월 1일조에 이책의 이름이 보이므로 이책은 그 이전에 배로 실려와 흥엽산 문고에 들어가 있었다고 보아도 좋다"고 기록되어 있다.⁶⁰

또한 橋川時雄은 寬政 7년(1789)에 抄寫된 『탈천공』에 대하여 사진을 첨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⁶¹ 보다 자세한 설명이 없어 알 수 없지만 내각문고속에는 明刊本이외에도 '華日堂藏書'라고 표지에 밝히고 있는 초사본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4) 참조). 책의 말미에 '寬政七年以近藤重藏本贈錄'이라고 써있는 것으로 보아 近藤重이 소장한 것을 1789년에 배껴 화일당장서에 수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탈천공』의 본문 앞에는 정원훈의 「원야제사」, 계성의 「자서」, 완대성의 「아서」가 덧붙여져 있으며 중국영조학사본(1931)의 모태가 되었다.

나) 木經全書

『목경전서』는 橋川時雄이 일본의 시중의 서점에서 입수한 것으로서 내용은 『원야』와 같은데 본문앞에 정원훈의 「원야제사」와 계성의 「자서」만 있고 완대성의 「아서」는 실려있지 않다. 이책은 국내에서도 영인되었다.⁶² 표지에 '木經全書' 서명이 있고 우측에 '松陵計無否先生著, 古文英發集即出'이라고 되어있으며 좌측에 '新鑄圖像古板'이라고 되어있으며



(그림 5) 木經全書

60) 橋川時雄 (1970), pp. 26-27.

61) 橋川時雄 (1970), p. 34, pp. 58-60.

62) 『園冶』, 서울: 도서출판 造景, 1990.; 이책은 橋川時雄의 「園冶」(1970) 중에서 橋川時雄의 해설을 빼고 본문에 해당하는 「목경전서」만을 영인한 것이다.

魯班經, 奪天工原本, 隆盛堂梓行'이라고 써여 있다. 또 음성당의 상표라고 생각되는 원형의 붉은 도장이 있다. 표지에 '탈천공'이라는 명칭이 있고, '음성당'에서 간행했다는 출판사명이 있으며, 앞서 언급한 「商船船載來書目」에 '목경전서'라는 명칭은 없는 것으로 보아 『奪天工』보다는 나중에, 일본에서 표지를 바꾸어 출간된 異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重印本 및 重刊本

이러한 『원야』가 중국에서 다시금 출간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 중국 북경도서관이 제3권이 빠져있는 『원야』를 입수하여 朱啓鈴과 陶湘 등이 관심을 가지면서 비롯되었다. 闕鐸은 북경도서관이 입수한 것에 주계금이 가지고 있던 影寫本을 합하여 1930년 영인하여 회영헌총서속에 포함시켰는데 이것이 소위 喜詠軒叢書本이다. 그러나 서둘러 영인하였기에 도식이 법도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았다.

이무렵 주계금은 橋川時雄을 통하여 일본의 내각문고에 『탈천공』이라는 제하의 『원야』와 같은 내용의 책이 있음을 알게되어 감탁으로 하여금 내각문고본과 회영헌총서본을 비교 교정하게 하였는데, 감탁은 해석이 편리하도록 絶句하고 도식을 교정하여 출간하였다. 이것이 1933년에 重刊한 中國營造學社本⁶³⁾이다. 영조학사본에는 주계금의 「重刊園冶序」(1931)와 『원야』에 대한 최초의 해설인 감탁의 「園冶識語」(1931)가 덧붙여져 있다.

영조학사본은 그 부수가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야』에 대한 수요도 늘어 1956년 陳植은 영조학사본을 重印하였는데 이것이 城市建設出版社本이다. 성시건설출판사본에는 진식의 「重印園冶序」(1956)가 덧붙여져 있다.

3) 註釋書 및 翻譯書

최근에 『원야』에 대한 주석서 및 번역, 해설서

등이 많이 출간되었다. 중국에서는 陳植교수가 백화문으로 번역하고 주석한 『園冶注釋』(1981)이 출간되었는데 이 책은 1988년에 제2판이 나왔다. 일본에서는 橋川時雄의 『園冶』(1970)와 上原敬二의 『解説園冶』(1975)가 출간되었으며, 영역본으로는 A. Hardie의 『Crafts of Gardens』(1988)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진식의 『원야주석』(1981)이 金聖雨·安大會에 의해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이들 주석 및 번역서들 중에서도 특히 『園冶注釋』(陳植, 1988)은 본문을 교열하고 체계적으로 주석을 달아서 현대어로 번역을 시도한 것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의 연구에서 『원야』의 본문은 陳植(1988)에 의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3. 『園冶』文章의 校勘

楊超伯은 회영헌총서본(이하 약칭 회본), 중국 영조학사본(이하 약칭 영조본), 성시건설출판사본(이하 약칭 성건본)을 교감하여 문자의 탈락, 필요없는 글자, 단구의 잘못 등을 바로잡았다.⁶⁴⁾

문자가 빠져있거나 필요 이상으로 부가된 것들은 다음과 같이 고쳤다. 제1권 「홍조론」의 「隨基勢高下」에서 「隨基勢」아래에 「之」자를 넣었다. <상지·촌장지>의 「居於畝畝之中」에서 「於」는 필요 이상의 것이므로 생략했다. <상지·강호지>의 「堪譜子晉吹簫」의 「譜」는 「譜」로 고쳤다. <옥우·실>에서 「古云.. 自半已前, 實爲室」의 「前」은 「後」로 고쳤다. <철산>의 「掃于查灰」의 「于」는 「以」로 하였다. <철산·내실산>의 「窓孩戲之預防也」는 영조본과 성건본이 모두 「妨」으로 잘못 표기하여 회본에 따라 「防」이라 고쳐 바로 잡았다. <선석>의 「時遵圖畫」는 세개의 본이 모두 「畫」로 되어있지만 「畫」로 하였다. 「徧山可探」는 영조본과 성건본 둘 다 「便」으로 틀리게 표기하여 회본에 의거하여 「徧」으로 바로잡았다. <선석·호구석>의 「目之爲壺中九華」는 세 본이 모두 「壺」를 「世」로 틀리게 표기하여 『동파칠집』에 따라

63) 영조학사본은 우리 나라 국립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다. (도서번호 古836-1)

64) 楊超伯 (1978), pp. 8-11.

‘壙’로 고쳤다. <선석>의 ‘冲盡土色’은 영조본과 성건본이 ‘克’이라고 잘못 표기하였는데 회본에 따라 ‘冲’으로 고쳤다.

<선석>편의 여러 조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곳이 특히 많고 문자에 잘못이 있었으며 여러 본들이 서로 똑같이 亥·豕, 魯·魚와 같은 오류가 있어서 『운림석보』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선석·영벽석>의 ‘其眼少(妙)有宛轉之勢’의 경우 『운림석보』에는 이 귀절 다음에 ‘或多空塞, 或質扁朴, 或成雲氣明佛像, 或狀四時之景’의 22자가 계속해서 있는데, 계성에 의해 ‘有一種扁朴而成雲氣者’로 바뀌어져 영벽석조 뒤에 붙여졌다. ‘或三四面全者’에서 ‘或三’ 아래에는 ‘面若’의 두 글자가 빠져있어 ‘或三面, 若四面全者, 即是從土中生起’로 하였다. <선석·호구석>의 ‘有數種’ 아래에는 ‘或山水中’ 4자를 넣었다. ‘或成類諸物’에서 ‘成’은 삭제하였으며, 諸物 아래에 ‘狀’자를 넣었다. 또한 ‘亦微扣之有聲’에서 ‘亦微’ 앞에는 ‘色’자를 넣었고 뒤에는 ‘潤’자를 넣었다. <선석·영석>의 ‘石產溪水中數種’에서 ‘數種’ 앞에 ‘有’자를 넣었으며, ‘有通白脈籠絡’ 앞에는 ‘間’자를 넣었고, ‘通’은 필요없는 글자로 생략하였다. ‘有峯巒’ 앞에는 ‘各’자를 넣었다. 이밖에도 명백히 자형을 오식한 것들, 예를 들어 ‘峒’, ‘蕉’, ‘巖’은 각각 ‘拱’, ‘焦’, ‘嚴’으로 모두 수정하였다.

단구를 잘못된 것은 다음과 같이 고쳤다. 「자서」의 ‘合喬木參差山腰牆根嵌石’은 ‘山腰’ 다음에 콤마를 찍었다. ‘依水而上構樓臺錯落池面’은 ‘依水而上, 構樓臺錯落池面’으로 고쳤다. 제1권 <옥우·마각>의 ‘閣四敞及諸亭, 決用如亭之三角至八角’의 ‘決用’ 두 자를 앞귀절에 붙였으며, 제3권 <포지>의 ‘惟廳堂廣廈中, 鋪一檝磨磚’에서 ‘中’자를 뒷귀절에 붙였다. <포지·제전지>의 ‘諸磚砌地屋內, 或磨扁鋪庭下宜仄砌’는 ‘諸磚砌地: 屋內或磨. 扁鋪; 庭下宜仄砌’로 하였다. <철산·청산>의 ‘以予見或有嘉樹稍點玲瓏石塊, 不然牆中嵌理壁巖’에서 ‘以予見’ 다음에 콤마를 찍었으며, ‘或有嘉樹’와 ‘不然’ 뒤에는 각각 콤마를 찍었다. <철산·폭포>의 ‘理也先觀有坑, 高樓簷水, 可潤至牆

頂作瓦溝’의 ‘高樓簷水’는 뒷귀절에 붙였다. ‘不然隨流散漫不成’은 ‘不然, 隨流散漫, 不成’으로 하였다. <선석>의 ‘須先選質, 無紋俟後, 依皴合掇’은 ‘須先選質無紋, 俟後依皴合掇’로 하였으며, <선석·선홍석>의 ‘便於竹林出水有性堅穿眼嶮怪如太湖石者’는 ‘便於竹林出水’ 뒤에 콤마를 찍었다. <선석·청룡산석>의 ‘全用匠作鑿取做成峯石祇一面勢者自來俗人以此爲太湖主峯’은 ‘全用匠作鑿取, 做成峯石祇一面勢者, 自來俗人以此爲太湖主峯’으로 하였다. <선석·영벽석>의 ‘鑄治取其底平’에서 ‘鑄治’는 앞귀절에 붙였다. <선석>의 ‘或梅雨天瓦溝, 下水冲盡土色’의 ‘下水’는 앞귀절에 붙였다.

4. 『園冶』의 文體와 해석상의 문제

『원야』의 문체는 산문과 駢儷文이 혼합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정원의 美學的 측면이나 ‘意境’을 다루고 있는 「원설」이나 「차경」 등은 변려문으로 되어 있고 재료의 종류 및 특성이나 시공방법 등에 관해서는 일반 산문으로 쓰여져 있다. 이러한 점은 산문과 변려문이 본래 가지는 문체상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변려문은 구절의 격식과 對句, 운율 등의 준제가 극도로 추구된 형식의 산문으로서, 변려란 말은 거의 모든 구절들이 대구로 짝을 지어 문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특히 녀자와 여섯자 구로 이루어져 四六駢儷文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대구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개념의 반복이어서 보다 설득력이 있는 문장을 이룬다. 특히 서정적인 경우에는 그 감정을 더욱 깊고 화려하게 표현하는 장점이 있기에⁶⁵⁾ 『원야』에서는 내용에 따라 변려문이 구사되었다. 예를 들어 「원설」의 모든 문장은 완벽한 對偶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일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地偏爲勝, 開林擇野蓬蒿; 원림의 부지는 떠들석하고 번잡하지 아니한 한적한 곳이 가장 좋으니, 숲속에다 뒤엎

65) 金學主 (1994), p.185.

	킨 잡초 정도만 제거하면 부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景到隨機, 在澗共修蘭芷	경치는 원림부지의 환경적 상황에 따라 알맞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니, 만약 물이 흐르는 계곡이라면 난초와 어수리 등을 함께 심어 가꾼다.
軒楹高爽, 納千頃之汪洋;	처마와 기둥은 높고 흰하여, 넓디 넓은 水景을 볼 수가 있고,
窓戶虛隣, 收四時之爛縵.	창과 문은 넓찍이 연결해 있어, 사계절의 선명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게 한다.
紫氣靑霞, 鶴聲送來枕上;	자주빛 기운과 푸른 노을 속에 학의 울음 소리 베게머리로 들려오고,
白蘋紅蓼, 鷗盟同結磯邊	흰 개구리밥풀과 붉은 여뀌가 편 물가로 갈매기 떼와 벗을 삼는다.
一灣僅於消夏,	한 굽이의 물이 어찌 여름날의 더위를 식히는 것에 불과할 것이며
百畝豈爲藏春?	백이랑의 林園이 어찌 봄을 간직하는 것에 그치겠는가?
夜雨芭蕉, 似雜鮫人之泣淚;	파초잎 위로 밤비가 내리니 마치 인어의 눈물이 굴러 떨어지는 듯하고,
曉風楊柳, 若翻蠻女之纖腰.	새벽 바람에 버드나무가 일렁이니 아름다운 여인이 가는 허리로 춤을 추는 듯하다.
溶溶月色, 靜擾一榻琴書;	휘영청 밝은 달은 書案위의 거문고와 책에 고요히 비치고,
瑟瑟風聲, 動涵半輪秋水.	솔솔 부는 가을바람은 반달이 잠겨있는 호수에 잔물결을 일으키네

이와 같이 장소, 시간, 계절, 수, 색채, 소리, 모양, 움직임, 고유명사 등의 모든 대비되는 개념들이 동일한 문장구조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원야』 변려문의 형식은 읽는 사람에게 운율감을 줄 뿐만 아니라 句讀를 쉽게 해주고⁶⁶⁾ 이미지의 전달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렇지만 반대로, 聲韻을 고려한 글자의 선택과 對偶性을 고려한 문장의 구성은 해석상의 어려움을 수반한다. 아울러 매 구, 매 자가 典故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어 현대인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중국의 중세 귀족사회의 지식인으로서 그러한 전고가 필수요양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었겠지만 후세인들에게는 해독하기 어려운 요건이 되고 있다.⁶⁷⁾ 아울러 『원야』에는 계성이 활동하던 당시의 蘇州 지방의 방언도 뒤섞여 있어 한층 해석을 어렵게 하고 있다.⁶⁸⁾

IV. 結論 및 考察

계성은 중국 명나라 말기의 어지러운 시대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강소성 일대에서 조원활동을 한 조경가이다. 그는 1623년에서 1624년 사이에 오현을 위하여 상주에 동제원을 만들었으며, 1631년 왕사형을 위하여 의정에 오원을 만들었고, 1634년에서 1635년 사이에 정원훈을 위하여 양주에 영원을 조영하였다. 그의 작품은 대단한 호평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는 한편으로 시와 그림에도 능하였지만 이 또한 전해지지 않는다. 그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것은 오직 1631년에 완성하여 1634년에 출간한 『원야』가 전부이다.

그는 오현, 왕사형, 완대성, 조이길, 정원훈 등과 교류하였는데 오현과 왕사형은 계성의 원림주이며, 조이길은 계성의 저술에 『원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계성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계기를 마련해준 인물이었다. 완대성은 『원야』의 출간에 도움을 준 인물이었지만 그의 반역자 이력은 『원야』의 보급에 저해가 되었다. 정원훈은 계성의 오랜 친구이자 원림주였다.

『원야』는 완벽한 체계를 갖춘 최초의 동양정원 이론서로서 3권으로 되어있다. 그 체계는 서문과

66) 이런 점에서 Hardie(1988)의 영역은 매우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는 변려문이 가지는 對偶性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해석의 난조를 보이며, 심한 경우 대구되는 절을 서로 다른 문단으로 나누어 버리기조차 하였다.

67) 金學主 (1994), p. 184.

68) 陳植 (1988), p. 6.

본문으로 되어있으며, 본문은 「홍조론」과 「원설」로 나뉘어지고 「원설」은 다시 10개의 절로 나뉘어져 있다. 『원야』의 원본은 중국에서는 완전한 것이 드물고 일본에서는 『탈천공』과 『목경전서』라는 제목의 이본이 존재한다. 이들 이본들은 명간본 이후에 초사되기도 하고 표지를 바꾸어 재영인되는 과정을 통하여 나온 것들이다. 『원야』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였는데, 이 중에서 원문의 오자, 탈자, 단구의 오류 등을 바로잡아 출간한 『원야주석』(1988)이 가장 뛰어난 주석서이다. 『원야』의 문체는 변려문이라는 형식과 산문의 형식을 혼용하고 있으며, 당시 소주 지방의 방언도 혼용하여 해석상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계성과 『원야』에 관한 기초적 연구를 통하여 향후 연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계성의 디자인 이론은 계성의 용어를 빌려 표현한다면 ‘興造論’이라 이름붙일 수 있는데, 홍조론은 ‘主者論’과 ‘因地論’, 그리고 ‘借景論’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하부이론은 다시 ‘因’, ‘借’, ‘宜’, ‘體’의 개념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주자론은 정원설계의 ‘주체’에 관한 것이며, 인지론과 차경론은 ‘主者’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상호 변증법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주자론’에서 말하는 원림과 관련된 주체의 설정과 이러한 주체들 사이에서 주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토지나 환경이 지닌 내적 질서를 의미하는 ‘宜’와 관련하여 잠재태인 ‘宜’를 발현시키는 실천적 원리로서의 인지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경관이 지닌 본질적 개념인 ‘體’를 얻는 원리로서의 차경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둘째, 『원야』의 이면에 함축되어 있는 정원의 설계가와 이용자 간의 의사전달방식, 다시 말해 창작과鑑賞의 미적 경계의 문제를 ‘意境’이라는 미학이론의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계성의 『원야』에 대한 미학적 접근을 통하여 오늘날 조경사와 조경설계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괴리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

기 때문이며, 이점은 또한 『원야』 정원이론의 현대적 수용 및 미래를 위한 창출이라는 과제에 부합되는 일이다.

인용문헌

1. 『中國人名大辭典』(1982),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2. 葛路 (1982), 『中國繪畫理論史』, 姜寬植 역, 서울: 미진사, 1989.
3. 關鐸 (1931), “園冶識語”, 陳植 (1988), 『園冶注釋』, pp. 23-31.
4. 計成 (1631), 『園冶(木經全書)』, 서울: 도서출판 造景社 영인, 1990.
5. 計成 (1631), 『園冶』, 北平: 中國營造學社, 1933.
6. 橋川時雄 (1970), 『園冶』, 東京: 渡辺書店.
7. 金聖雨, 安大會 역 (1993), 『園冶』, 서울: 圖書出版 藝耕.
8. 金學主 (1994), 『中國文學의 理解』, 서울: 新雅社.
9. 上原敬二 (1975), 『解說 園冶』, 東京: 加島書店.
10. 宋應星 (1636), 『天工開物』, 서울: 國土開發研究院, 1983.
11. 申採湜 (1994), 『東洋史概論』, 서울: 三英社.
12. 楊超伯 (1978), “『園冶注釋』校勘記”, 陳植 (1988), 『園冶注釋』, pp. 8-16.
13. 吳肇釗 (1985), “計成與影園興造”, 建築師 23, pp. 167-177.
14. 阮大鍼 (1634), “治叙”, 陳植 (1988), 『園冶注釋』, pp. 32-36.
15. 鄭元勳 (1635), “題詞”, 陳植 (1988), 『園冶注釋』, pp. 37-41.
16. 曹汎 (1982), “計成研究-爲紀念計成誕生四百年而作”, 建築師 13, pp. 1-16.
17. 朱啓鈞 (1931), “重刊園冶序”, 陳植 (1988), 『園冶注釋』, pp. 21-22.
18. 陳植 (1956), “重印園冶序”, 陳植 (1988), 『園冶注釋』, pp. 17-20.
19. 陳植 (1978), “園冶注釋序”, 陳植 (1988), 『園冶注釋』, pp. 5-7.
20. 陳植 (1981), 『園冶注釋』, 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1. 陳植 (1985), “『園冶注釋』(第2版)序”, 陳植 (1988), 『園冶注釋』, pp. 1-4.
22. 陳植 (1988), 『園冶注釋』第二版, 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3. 黃琪源, 李暉植, 具泰益, 全潔玉 (1993), “『園冶興造論』研究(1) - 主者論을 중심으로”, 環境論叢, 第31卷, pp. 112-140.
24. Ji Cheng (1634), *The Craft of Gardens*, translated by Alison Hardi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8.